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로 본 렘 콜하스, SANAA, 소우 후지모토 건축의 특성**

A Study on the Works of Rem Koolhaas, SANAA, Sou Fujimoto through the Text of Roland Barthes

Author 박주석 Park, Ju-Seok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석사과정
김동진 Kim, Dong-Jin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Abstract The semiotics philosopher Roland Barthes declared 'the death of the author'. This means a sense of skepticism about author-centered writing in literature, and that readers and critics must also change their reading attitudes. In architecture, too, author-centered design appears. Architects sometimes try to express their will and concepts strongly through their work. However, this architecture is oriented toward identity, self-revealing, self-centered, and eventually without inspiration.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er does not result in a single meaning, and it is architecture as text that allows readers to enjoy the pleasure of deciphe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unilateral by the will of the architect. Or whether there is a potential for non-intelligence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meaning.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the works of Rem Koolhaas, SANAA and Sou Fujimoto to see if they are free from the will of the architect and can obtain the user's true freedom. As a result, we want to reveal the potential of various interpretations by user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Keywords 롤랑 바르트, 신화론, 에크리튀르, 상호텍스트성, 의미생성
Roland-Barthes, Mythologies, écriture, Intertextuality, Signifiant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호학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저자는 죽었고 독자가 탄생했음'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학에서 저자중심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며, 독자와 비평가의 읽기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근대적 독자들은 저자의 무수한 의도들을 찾기에만 연연해왔다. 그러나 문학뿐만 아니라 사진, 영화, 현대예술분야에서는 더 이상 작가의 초기 의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독자는 문학 혹은 예술을 바라볼 때 작가의 본연의 의지로 가득한 작품이 아닌, 언제든지 재해석 가능한 '직조(tissue)되어진 텍스처(texture)'¹⁾로 봐야 한다. 즉, 근대적 저자는 고정된 의미만을 전달하는 단일 생산자였다면, 현대적 독자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의미를 생성해내는 능동적 주체이다.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대중매체의 이면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는 알고 보면 남성중심주의적 어법이 내포되어있다.²⁾ 대중은 이러한 보편화된 기호에 노출되어 길들여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바르트는 이러한 권위적 언어에서 탈피하고자 저자가 죽어있는 중립적 글쓰기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저자 스스로는 중립을 지키며 어떠한 전체적 이데올로기도 주입하지 않으며, 독자 각각의 우연적인 의미생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건축에서도 독자인 '사용자 혹은 거주자'의 열린 해석을 추구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는 건축요소의 복합성과 대립성에 의한 모호한 의미전달을 통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소통하고자하는 자세를 가졌다. 또한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가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는 사용자 스스로가 공간을 규정할 수 있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au0000@nate.com
** 이 논문은 2016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Uchida Tatsuru,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p.141
2) Ibid., pp.134-135

여지를 남겨놓고자 하였다.³⁾ 이를 통해 자칫 구조주의자들이 인류공통의 근본구조라는 체계 안에서 동일성만을 반복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전의 구조주의적 건축가들은 고정된 일관적 체계에 머물렀다면, 탈-구조주의에 이르러서는 혼돈과 마주하며 차이·반복·생성 관점의 건축을 추구한다. 특히,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사용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질서정연한 건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혼돈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았다.⁴⁾ 사용자의 응집에 의한 촉발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SANAA의 경우는 다양한 행위들이 담길 수 있는 장의 개념으로 ‘공원과 같은 건축’을 하였고,⁵⁾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는 커뮤니케이션의 실마리로 가득 차 있으며 행위를 유발하는 공간은 부자유하고 형태가 없는 ‘동굴과 같은 건축’이라고 한다.⁶⁾ 이처럼 현대건축가들은 독자관점에서 행위유발과 자유로운 해석, 유연성의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매체의 시각텍스트를 분석하여 기호학적으로 적용시킨 롤랑 바르트의 관점에서 독자, 즉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건축의 특성을 연구하여, 건축가의 독단적인 언어가 아닌 사용자 스스로에 의한 건축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 관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진행체계는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와 관련된 개념들을 연구한다. 바르트의 초기 개념에 영향을 주었던 소쉬르로부터 시작하여 신화론과 에크리튀르에 대해서 연구하고, 후기 구조주의적인 경향의 발판이 되었던 독자의 탄생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 이전 시기의 기호와 언어 구조를 활용한 건축을 바르트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이러한 건축 경향으로부터 가능성과 한계를 밝힌다.

위의 연구를 통해 바르트의 신화와 텍스트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Rem Koolhaas, SANAA, Sou Fujimoto 등의 현대건축 작품을 연구한다. 연구과정을 통해 각각의 건축가들의 텍스트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축이 텍스트로써 작동하기 위한 전략들을 도출해낸다. 더불어 앞으로의 현대건축에서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이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3) 임기택,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p.109
 4) 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8, p.24
 5) Kazuyo Sejima+Ryue Nishizawa, El croquis 121+122, 2004, p.23
 6) Sou Fujimoto, 정영희 역,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pp.10-14

2.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와 건축언어

2.1. 언어구조와 텍스트

구조언어학의 시초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의 초점을 언어활동에 맞췄다면, 바르트는 언어학 자체를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를 기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레슬링, 잡지, 광고, 음식 등이 바르트의 ‘신화론(Mythologies, 1957)’에서 문화비판적으로 다루어졌다.⁷⁾ 이는 건축을 분석할 때에도 기호학이 비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1) 소쉬르에서 바르트로; 이항대립 기호학의 한계

구조언어학은 어떤 보이지 않는 주체 외적인 선형적 구조에 의해 언어가 우리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⁸⁾ 소쉬르는 이 구조를 4가지의 이항대립으로 정리하였다. 언어의 시간성을 공시성(synchrony)/통시성(diachronic), 언어활동은 랑그(langue)/파롤(parole), 언어의 조직 구조를 계열체(paradigm)/통합체(syntagm), 기호를 기표(signifier)/기의(signified) 등으로 분류하여 언어의 근본적 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기호를 음성/시각 등의 물리적 이미지 형태로 표현되는 기표(기호표현, signifiant)와, 그 기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의 기의(기호의미, signifié)의 결합으로 보았다.⁹⁾ 그러나 소쉬르 언어학의 ‘이항대립 구조’에는 모순과 한계가 있다. 사회적 규범에 의한 고정된 체계에 의해 주체의 창조적 측면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언어는 공시적 측면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동성과 불안정성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¹⁰⁾

(2) 현대의 신화론; 기호의 의미작용 체계

소쉬르의 언어는 기표₁와 기의₁로 이루어진 1차 체계이다. 1차 체계는 외시 의미(denotation), 즉 객관적이고 명시적 의미를 뜻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이며, 직설적인 의미전달 체계이다. 바르트의 신화론은 외적인 의미만을 전달하는 소쉬르의 1차 체계를 함축된 의미의 2차 체계로 변형시킨다. 1차 체계에서 2차 체계로 변형되면, 외시적 의미작용을 하는 기표₁/기의₁는 통합되어 기표₂로 전환되고 새로운 함축의미인 기의₂가 생성된다.¹¹⁾

7)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Mythologies)’은 현대 사회의 일상적인 삶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그 내면에 은폐된 의도를 우리에게 낱날이 밝혀준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8) Uchida Tatsuru, op. cit., p.129
 9)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pp.31-38
 10) 박유미, 소쉬르의 CLG(일반언어학 강의)에 나타난 이원성 원리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4, pp.62-66
 11) “신화는 1차 체계의 언어에 작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의미에서 새 의미를 생성시킨 언어이므로, 일종의 메타언어이다.” Graham Allen, 송은영 역,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엘피, 2006, pp.95-96

신화론의 핵심은 기호가 사회적으로 사용될 때, 겉으로 보이는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연스러움으로 위장된 이데올로기가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간잡지 ‘파리 매치



<그림 1> 파리 매치 표지의 거수경례하는 흑인소년

(Paris-match)’의 책표지 사진을 신화의 예로 들었다. 표지사진의 1차 체계는 복사된 사진을 기표₁로 하며, 프랑스 국기에 경례하는 흑인소년을 기의₁로 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2차 체계의 내포된 의미가 있다. 1차 체계의 기표₁/기의₁는 2차 체계의 기표₂에 속하게 되고 새로운 기의₂가 생성된다. 2차 체계로 변형되면서 생성되어진 함축의미는 ‘알제리에서의 프랑

스 식민주의의 정당화’이며, 프랑스는 피부색과 출신 국적을 초월하여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대한 국가라는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¹²⁾

<표 1> 롤랑 바르트의 현대 신화론

언어 신화	구성	기표	기의	특성	
	1차 체계	기표 ₁	기의 ₁	의사 의미	명시적, 직설적 의미전달
2차 체계	기표 ₂ (기표 ₁ +기의 ₁)	기의 ₂	함축 의미	내포적 의미전달 의미생성, 의미작용	
		기호			

(3) 에크리튀르의 지배; 언어 규제의 구조

언어 사용자는 주관적 신념을 가지고 언어를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언어가 사용자를 지배한다.¹³⁾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서도 보이듯이 기호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수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이해를 시키는 듯 강요하고 있다.¹⁴⁾ 그렇다면 과연 기호를 생산하는 주체는 언어사용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바르트는 주체를 규제하는 언어사용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문법체계의 ‘랑그(langue)’, 그 언어를 쓰는 사용자의 개인적 성향인 ‘스틸(style)’, 그리고 사회적 태도인 ‘에크리튀르(écriture)’로 구분한다. 바르트가 주목한 것은 제3의 규제인 에크리튀르이다. 언어 사용자(저자)가 사회적 소속감을 스스로가 선택하게 되면 언어사용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선택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성직자의 에크리튀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저자의 실제 내면과는 무관하게 신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언어사용을 하게 된다.¹⁵⁾ 언어사용

에 있어서 주체 스스로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주체는 에크리튀르의 지배를 받게 되며 언어 구조의 체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표 2> 롤랑 바르트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제3의 규제 에크리튀르

언어(langue)	스타일(style)	에크리튀르(écriture)
국어, 문법체계	개인적 성향	사회적인 태도
랑그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체계로 한국어, 일본어로 구분되는 언어마다의 문법체계를 말한다.	스틸은 개인의 성향에 따른 언어사용 선호도로 목소리 톤의 높낮이, 말수가 많고 적음 등이 이에 속한다.	에크리튀르는 사회 내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집단의 언어사용 선호도를 말한다. 교사의 어투, 성직자의 어투가 이에 속한다.

에크리튀르는 가치중립적인 어법처럼 보이며 수용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사회집단 전원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다.¹⁶⁾ 반면 바르트가 추구하고자 했던 에크리튀르는 ‘다큐멘터리의 시선’, ‘저널리스트의 에크리튀르’, ‘순수한 에크리튀르’ 등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강요하지 않는 글쓰기 방식이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스스로가 쓴 글에서도 권력적 글쓰기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¹⁸⁾ 그는 계속적으로 이 불가능한 글쓰기에 도전하였고, ‘독자의 탄생과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며 전통적 저자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4) 독자의 탄생과 저자의 죽음; 작품에서 텍스트로

바르트의 초기 연구인 신화론은 언어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어질 때, 그에 따라 사회 이면에서 작동되는 구조체계에 관한 것이다. 신화론의 의미작용(signification) 분석을 통해 기호의 내면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파헤쳐 언어의 내면적 구조를 연구하였다면, 후기 바르트의 텍스트 이론은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적인 텅 빈 기호, 저자 관념의 비판, 우연적인 감성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한 기의를 내포하는 탈구조주의적인 성향으로 옮겨갔다.

롤랑 바르트가 전통적인 저자를 탈피하게 된 계기는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주의에 영향을 받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으로부터이다. 바흐친은 랑그에 치중되어있던 소쉬르의 이론을 비판하였는데,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를 알아야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크리스테바의 텍스트는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스스로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주변 텍스트와의 관계와 문화적 상황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상호텍스트성 관점으로 언어를 바라보았다.¹⁹⁾ 즉 랑

12) Roland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p.274

13) Uchida Tatsuru, op. cit., p.136

14) Roland Barthes, 현대의 신화, op. cit., p.275

15) 김창현·김경화·안상원·이노미·정혜선, ‘샘물 세모금’에 나타난 알레고리와 한국 아동문학가의 에크리튀르, 인문논총 v.72 n.1, 2015, p.204

16) Uchida Tatsuru, op. cit., p.134

17) Uchida Tatsuru, op. cit., p.147

18) Graham Allen, op. cit., p.188

그를 중시한 소쉬르는 바흐친의 대화주의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바르트의 탈구조주의 선언의 밑거름이 되었다.

독자 탄생 이전의 근대적 저자는 함축적 의미 전달을 위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조물주 역할이었다. 독자에게 있어서 저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독자는 작가의 의도와 초기조건 찾기에 열중하였으며, 작품은 단일의미만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²⁰⁾ 결국 작품의 기표는 안정된 기표로 귀결되어 의미가 굳어지게 되는데, 이는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비가역적 고정물이다.

반면에 탈구조주의에서의 독자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역적이고 유연하다. 독자 탄생은 저자가 작품에 담고자 했던 본래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독자가 스스로가 텍스트와 구조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작품이 고정된 의미를 향해 직진하고 안정된 상태로 멈추어 선다면, 독자의 텍스트는 유희와 생산의 대상으로서 복수의 의미로 확산하고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정한 상태이다.

<표 3> 전통적 저자와 탈구조주의의 독자

저자	독자
저작권자, 전달의 매개, 조물주	복제, 재해석, 생성
의미작용(signification): 단일의 안정된 기표로 귀결 되는 기표	시니피앙스(signifiance): 독자가 생산하는 복수의 의미
작품(work)의 초기조건을 찾는 읽기	텍스트(text)의 생성적 과정
결정론적이며 안정된 의미의 텍스트	방법론적이며 불안정한 텍스트
신화작용	탈신화

2.2. 기호로서 건축의 에크리튀르, 신화, 텍스트

(1) 언어, 스타일 그리고 에크리튀르

바르트의 관점에서 언어사용을 규제하는 요소에는 언어, 스타일, 에크리튀르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은 건축언어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 먼저 건축에서의 언어(langue)의 규제는 대지의 물리적 형상이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법규, 최소한의 인체치수 등의 필수불가결한 제약조건이다. 두 번째 요소인 스타일은 작가 개인의 내면에 체화된 건축표현 방식이다. 지역적 풍토와 개인사의 영향을 받은 개성적인 방식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며, 이 또한 건축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세 번째 요소인 건축의 에크리튀르는 건축가 혹은 사용자가 도시, 건축, 자연, 사람 등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서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건축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컨셉은 건축의 발생 이전에 존재하며 건축표현의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건축가의 에크리튀르에 따라 전혀 다른 기호가 생성된다. 언어와 스타일이 이미 고정된 설정 값이라면, 에크리튀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며 이 설정에 따라 기호의 성격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건축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형태와 비례’, ‘난간의 디테일’, ‘재료의 색감조화’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에크리튀르에는 ‘주변과 상호 소통하는 배치’, ‘외부 산책로의 내부관입’,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적 동선’ 등이 속하며 이 설정에 따라 건축프로세스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

(2) 건축에서의 신화와 함축적 의미

바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마추어 레슬링에서의 암묵적인 관습, 광고의 언어, 여행 책자, 패션 체계의 기호 등에 관하여 재치 있게 서술했다.²¹⁾ 도시와 건축공간에서도 바르트의 신화에 의한 의미작용이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책상배치를 예로 들어보겠다. 사무공간의 1차 체계의 기표는 가구가 배치된 상태이고, 기표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다. 마주보는 배치는 대화를 유도하고, 등지고 있는 배치는 업무집중, 나란히 앉는 배치는 업무지도에 용이하다. 이들 각각의 배치는 사무실의 성격에 따른 유형들이다. 신화는 이를 2차 체계로 변형시키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친밀도’, ‘수직적 조직시스템’, ‘권위적 감시’, ‘생산의 효율성’ 등의 함축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회사의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이데올로기라는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이 예에서 가구라는 기표가 쓰이기 이전의 배치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윤추구 혹은 합리성의 에크리튀르’이다.

(3) 텍스트로서의 건축

건축가는 작품의 탄생 이전에 존재하는 에크리튀르를 도구로 신화를 생산해낸다. 이 신화는 때로 폭력적으로 작용하는데 에크리튀르의 방향성이 명확할수록 하나의 안정된 의미로 한정짓고자하는 성질 때문이다. 안정화된다는 것은 최종적인 단일 개념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이고, 건축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유희를 축소시킨다.²²⁾

이러한 건축가의 강압적 에크리튀르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텍스트로서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상호 얽힘의 관계를 지향하며 무한한 관계들의 조합과 재해석 가능성을 유도한다.²³⁾ 때문에 텍스트적인 건축은 의미가 불명확하며 유연성을 허용한다.

2.3. 텍스트로서 건축의 가능성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이론은 소쉬르의 구조주의에서부터 탈구조주의적인 성향까지 폭넓은 관점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건축가가 선행적으로 설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을 구축하거나, 건축요소를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

21) Graham Allen, op. cit., pp.77-78

22) “저자와 그 자식인 신화는, 읽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특히 편리하다. 신화는 완전한 의미로 이해시키고 길들인다. 저자의 형상은 의미의 유희를 축소시키도록 계획되어 있다.” Graham Allen, op. cit., p.149

23)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p.86-87

19) Graham Allen, op. cit., pp.157-162

20) Uchida Tatsu, op. cit., pp.138-140

사례를 몰랑 바르트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알도 로시의 집단무의식

‘도시의 건축(The Architecture of the City, 1962)’의 저자 알도 로시(Aldo Rossi)는 실증적 방식으로 도시를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영향을 받아 서구인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건축적 원형의 유형적 요소들을 건축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로시의 건축은 단편적이며 이미지적인 한계에 머문다.²⁴⁾ 건축가 본연의 깊은 내면에서 정립된 유형들이 배치도에 나열되고 단일한 의미로 굳어지게 된다. 로시는 신고전주의적인 건축어휘라는 에크리튀르를 사용하고 있다. 무수한 유형들이 작가의 선택사항에 있지만 이들 중 최종적으로 선택된 기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로 귀결되어진다. 유형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될 수는 있지만 다의적인 텍스트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4> 텍스트로 본 알도 로시의 집단무의식

에크리튀르	기표	기의	함축의미
신고전주의적 건축어휘	원기둥, 열주, 삼각페디먼트, 피라미드, 광장굴뚝	고대 로마의 광장에 자주 나타나는 열주에 대한 집단 무의식	작가 본연의 기억에 의존한 설계는 과거의 기억과 감성적 측면이 강조된 결과물이다.

(2)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 랭귀지

도시, 건축, 구조에 대한 253개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 알렉산더의 ‘패턴 랭귀지(A Pattern Language, 1977)’는 구조주의적인 사유와 연관된다. 초기의 패턴 랭귀지는 외적 변수들을 입력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구조였다면, 후기에는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패턴언어들을 수합하고 그림 조각 맞추듯이 관계조함을 하며 결정해나가는 참여적인 구조이다.²⁵⁾ 거주자는 패턴의 수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건축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에는 수합된 패턴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건축가의 역량이다.²⁶⁾ 또한 합리적으로 선택된 패턴은 폭넓은 선택지에서 결정되어 자유로워 보이지만, 단일 구조로 귀결되고 이에 지배받게 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24) “건축 유형학은 구조주의적 성향이 있으므로 이성적인 합리성예 기반을 두지만 과거의 기억, 감성적 측면이 들어가므로 자칫 잘못하면 로시의 경우와 같이 이미지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비평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임기택,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op. cit., pp.134-138

25) 임기택,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op. cit., pp.78-89

26) 정성욱, 연결망 분석도구를 이용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패턴언어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5 n.3(통권 116호), 2016, pp.31-33

<표 5> 텍스트로 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 랭귀지

에크리튀르	기표	기의	함축의미
합리주의적인 그림조각 맞추기	도시 94개, 건축 109개, 구조 50개, 총 253개의 패턴 리스트에서 선택된 패턴언어	사회적 맥락과 사용자의 욕망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채택되고 조립되어진 패턴언어	사용자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설계과정상의 동의를 구하였고, 자유로워 보이던 구조는 단일 구조로 귀결되어 굳어지게 된다.

(3)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공동결정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가들은 고대문명의 도시와 원시부족의 마을에서 근본적인 구조를 찾아내 건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소쉬르의 언어구조주의에서 나타나는 랭그/파롤 개념이 위와 같은 근본 구조 속에도 존재함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와 그의 제자 헤르만 헤르츠버거(Herman Hertzberger) 등이 있다. 특히 헤르츠버거는 거주자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파롤(parole)적인 공동결정(co-determination) 개념을 건축에 접목시켰다.²⁷⁾ 명시적인 기능에만 집착하여 경직되기보다는 사용자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²⁸⁾

그러나 공동결정 개념을 신화론으로 본다면 그 한계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센트랄 베헤어 빌딩(Centraal Beheer head office, 1968-1972)’에서 자유로운 것은 모듈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구배치이다. 이미 랭그는 그 안에 ‘가구배치 유형’이라는 매뉴얼을 함유 하고 있고, 결국은 건축가의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이다. 이 건물 또한 구조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주관적 표현은 동일화 되었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츠버거는 신체적 접촉, 커뮤니티 유발, 다양한 해석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에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표 6> 텍스트로 본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공동결정

에크리튀르	기표	기의	함축의미
언어 구조주의의 랭그/파롤	랑그적 요소의 배치 및 건축방식	고정된 랭그적 요소 안에서 사용자의 파롤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	사용자가 자유로운 것은 구조 속에 내재된 규칙 내에서이며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4) 로버트 벤츄리의 복잡성과 대립성

1960년대 출간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1966)의 저자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는 ‘적을수록 지루하다(Less is a bore)’의 주인공으로 모더니즘의 거장들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벤츄리는 단순함 보다는 과다함을, 명백한 통일감 보

27) 임기택,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op. cit., pp.97-119

28) Herman Hertzberger,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효형출판, 2009, p.17

29)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려는 노력은 시들해지고 대세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Herman Hertzberger, op. cit., p.124

다는 너저분한 생동감을, 양자택일보다는 양자공존을 선호하였다.³⁰⁾ 그의 대표작 바나 벤츄리 하우스(Vanna Venturi House, 1964)는 서구문화의 일반적인 집의 형태에서 박공지붕, 굴뚝, 창문들을 기호화하여 사용하였다. 이 기호들을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며 과장되거나 축소, 제거되거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호적인 요소들의 변증법적인 구조는 전체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석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의 기호화가 자본론적 의도에 의해 경쟁적으로 사용되면 자칫 테마파크화 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³¹⁾

<표 7> 텍스트로 본 로버트 벤츄리의 복잡성과 대립성

에크리튀르	기표	기의	함축의미
복합성과 대립성	관습적인 이미지(박공지붕, 굴뚝, 창문)	이미지 기호들은 과장과 축소, 제거와 강조 등에 의한 대립관계	부분들의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 전체 의미가 모호해지며 다양한 해석과 흥미를 유도한다.

(5) 건축에서 탈-에크리튀르

근본구조는 형태를 확정짓지 않은 무형의 상태이므로 유연하고 선택이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자유는 그 구조를 선택하기 전까지 이며 건축가에 의해 확정된 구조는 사용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마치 롤랑 바르트가 주장하는 ‘에크리튀르의 지배’와 같은 논리이다. 건축에서도 폭력적인 에크리튀르가 존재하며, 그 구조에 의해 행동패턴을 강요받게 된다. 알도 로시의 예에서는 작가의 ‘신고전주의 에크리튀르’가 과거의 이미지를 강요하고 있었고, 알렉산더의 ‘합리주의적 그림맞추기 에크리튀르’는 작가의 역량에 치우친 구조로 귀결되어졌으며, 헤르츠버거의 ‘랑그/파를 에크리튀르’는 랑그 속의 체계가 파를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폐되어있었다. 이처럼 거주자는 건축가가 구사하는 에크리튀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벤츄리의 경우에는 명료한 의미보다는 모호함에 초점을 두어 사용자의 흥미와 이중의미라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후의 현대건축가들은 어떠한 에크리튀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선 건축가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건축가의 고정적 의도로부터 사용자에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텍스트 관점으로 본 현대건축 분석

3.1. 분석의 틀

30) Robert Venturi, 임창복 역,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동녘, 2004, pp.32-33

31) 임기택,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pp.139-140

현대건축의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건축 이전에 존재하는 건축가의 에크리튀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에크리튀르를 통해서 생산된 신화가 어떠한 의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의해 탈-신화화 혹은 탈-에크리튀르의 가능성과 텍스트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표 8> 텍스트 분석의 틀

에크리튀르			건축가의 사회적인 태도와 의도적인 방향성
건축 공간의 신화	1차 의미	기표	건축의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객관적 서술
		기의	건축물의 외연적 사용방식, 표출된 의미
	2차 의미	함축 의미	-은연중에 나타나는 구조 혹은 내포된 의미 -사용자 간에 공유된 굳어진 의미
텍스트로서의 특성			-건축가의 에크리튀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의미의 모호함과 재해석 가능성 -우연성의 허용

3.2. 렘 콜하스의 혼돈의 수용

사용자의 상상력은 때때로 건축가의 의도와 개념을 뒤집어엎는다. 콜하스는 혼돈의 수용과 그것들의 중첩을 통해 사용자가 새로운 구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건축을 적극적이며 다의적으로 체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³²⁾ 다음 <표 9>의 분석을 통해 건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혼돈상태의 카오스가 어떻게 밀집되며, 건축의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프로그램이 응축된 연속체

콜하스는 초기에 설정한 프로그램 밴드를 연속적 경사판에 응축되어 놓이게 하였다. 그의 건축 공간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하지만 위상학적으로 펼쳐 보면 일직선 위에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상태이다. 경사판과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동선의 흐름을 내부 깊숙한 곳과 최상층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 동선 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접시켰다. 이를 통해서 인접 프로그램 간에 유동적인 상호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연속체에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배치와 관계가 중요한데 사용자는 연속선상에 놓인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접속하며 스스로가 재조합하며 편집해 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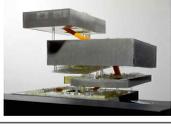
(2) 중첩된 기표

현대도시는 밀집된 공간에 이질적인 욕망들이 충돌하며,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기에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제한적이다. 콜하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의미들을 중첩하고 다의성을 내포하는 공간구성을 하였다.³³⁾ 하나의 절대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아닌, 대조적 성격의 사물을 병치하여 불명확

32) 임기택,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pp.117-120

33)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형2 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0, pp.171-173

<표 9> 렘 콜하스 텍스트 분석

작품 개요	참고 이미지	에크리튀르	건축공간에서의 신화			텍스트로서의 특성
			1차 의미		2차 의미	
			기표	기의	함축의미	
쿤스트할 Rotterdam / 1987		내부 프로그램을 관통하고 엮는 도시 Path	직육면체의 매스를 관통하는 나선형의 경사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연속적인 시퀀스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램프와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공간의 성격을 연속적이면서도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	연속적인 동선에 의해 프로그램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이질적인 요소들의 중첩에 의한 불명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에듀케토리움 Utrecht / 1995		도시와 프로그램의 연속	하나의 면이 접히고 말려진 형태	카페테리아, 강당 등의 프로그램이 접혀진 면을 따라 연결된 공간	프로그램이 층간의 구분이 아닌, 하나의 면 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다.	쿤스트할이 선적인 연속성이었다면, 에듀케토리움은 면적인 연속성을 통한 다방향적인 선택적 동선이다.
리움 미술관 Seoul / 2004		도시의 연속적 흐름을 수용하는 미술관	지하로 파여진 천장고 17m 공간의 중심에 떠 있는 블랙박스	외부, 내부, 블랙박스, 지하 등의 공간을 램프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연속적인 시퀀스로 연결한 공간	동선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여 이러한 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프로그램을 선택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한 하나의 홀이지만 매스가 중심에 있어서 전체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없고, 다음 공간에 대해 상상하도록 한다.
시애틀 공공 도서관 Seattle / 2004		도시와 프로그램의 수직적인 연속	5개의 고정적이며 안정된 프로그램과 4개의 유동적인 프로그램이 서로 병치되어 쌓여진 단면	에스컬레이터, 나선형 램프구조에 의해 수직적으로 연결된 동선에 의해 연속적인 시퀀스를 느낄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들의 위치는 수직적으로 쌓여져 있는 듯 하지만 연속적인 동선 위층에 나열돼 있다.	고정된 매스 사이에 있는 유동적인 공간을 통해 수직적인 건축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
서울대 미술관 Seoul / 2005		대지의 경사도와 내부프로그램의 연속성	직육면체의 하부를 경사지에 맞게 구성하고 캔틸레버로 띄워진 형태	외부와 내부가 경사지와 램프, 계단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듯 공간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	전체를 연결하는 동선과 내부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선택적 프로그램밍이 가능하다.	외부동선을 내부까지 관입시킨 연속성을 통해 계속적인 몸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자유의지에 의해 건축을 해석하도록 한다.

한 의미와 모순된 관계를 유도하였으며 사용자가 스스로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콜하스의 작품을 보면 고유한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근현대 건축가들의 건축 개념들을 패러디 하였다. 여러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면서 상충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휘들은 권위적 주체가 연설하는 독백적인 구조가 아닌 이질적 언어들이 충돌하는 소설적인 대화담론 구조를 취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이질성 혹은 아이러니함이 독단적인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³⁴⁾

(3) 사건이 내재된 평면

만약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의 변형은 쉽지 않고 항상 반복적인 상황만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반면 불특정한 사건이 내재된 평면은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정적이며, 상호 충돌 가능성을 극대화한 공간이다. 콜하스 작품의 공간구성을 보면 연속적인 유동인구가 건물전체를 관통하게 하여 계속적인 시선의 교차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³⁵⁾ 이는 다양한 사건들을 촉발하는 건축으로서의 잠재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3.3. SANAA의 공원과 같은 건축

니시자와 류에는 사용자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불러일

으키는 ‘열린 건축’을 지향한다.³⁶⁾ 건축가의 일방적인 어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창조적 행위가 자유롭게 구상 가능한 공원과 같은 건축을 추구한다. 이런 건축 철학이 텍스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 <표 10>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틀 안에 혼재된 기표

콜하스의 건축은 선적인 방향성이 강조되었다면, SANAA의 건축은 정해진 동선 없이 다방향적이며 무목적적이다. 기존 건축이 갖고 있던 문법체계를 탈피하고 위계 없는 상태로 배치하였는데, 하나의 장(field)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기의를 담은 기표들이 미분화된 상태로 혼재되어 있다. 이 흩어진 기표들을 통해 의미를 완성하고 해석해내는 건 사용자의 몫이다. 이처럼 텍스트화 된 건축은 ‘건축가는 완성된 문장을 서술하고 사용자는 이것을 무미건조하게 읽기만 한다’는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스스로의 창조적 해독과 오역을 가능하도록 한다.

(2) 파편화된 기표의 의미작용

생존을 위해 발달된 인간의 ‘완성착각’ 능력은 부분적인 시각정보만을 수용하더라도 즉각적이고 성급한 판단력으로 이들을 조합하여 완성된 형태를 떠올리게 된다.³⁷⁾ SANAA의 건축은 파편화된 부분들이 서로 간에 간극을 두고 혼재되어 있다. 특히 가나자와 21세기 미술

34) 이강훈, 대화주의와 아이러니, 영미연구 제33집, 2015, pp.161-164

35) 임기택,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op. cit., p.118

36) Nishizawa Ryue, 강연진 역, 니시자와 류에가 말하는 열린 건축, 한울, 2016, pp.239-241

37) EBS 다큐프라임, 감각의 제국 1부(살아 있는 모든 것은 감각한다), 2015

<표 10> SANAA 텍스트 분석

작품 개요	참고 이미지	에크리튀르	건축공간에서의 신화			텍스트로서의 특성
			1차 의미		2차 의미	
			기표	기의	함축의미	
사이슌칸 제약 여자기숙사 Kumamoto / 1991		공적, 사적 영역의 위계 탈피	두 침실 열 사이의 공용 공간(독서실, 휴게실, 화 장실, 세면실)와 바깥쪽의 공용테라스로 이루어진 평면	숙면을 제외한 나머지 활 동들을 공용공간에서 해결 하고 최소화된 사적 공간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던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고 집어내어 위계를 재설정 하고 친밀도를 최대한으 로 유도하였다.	최소한의 사적 행위를 제외한 나 머지를 공용공간으로 응집시켜 촉발적인 사건을 유도하였다.
스터드 극장 Almere / 1998-2006		크고 작은 방들의 탈위계적인 배치	균질한 그리드에 크고 작 은 방들이 복도가 없이 투명한 재료를 사이에 두 고 인접하여 배치	방에서 방으로 이동을 할 때 복도가 아닌 방을 거 쳐서 이동하는 미로와 같 은 공간	유리로 된 외피를 통해 시각적으로 여러 커들이 겹쳐진 공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공간을 선택적 으로 이용한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다층적인 공간인지와 위계 없는 리즘적인 동선에 의한 상호관계가 가능하 다.
21세기 미술관 Kanazawa / 1999-2004		공원과 같은 개방적인 미술관	원형의 영역 안에 무질서 하게 배치된 전시 공간	어느 방향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어느 곳으로도 지시하지 않는 공간	탈중심적으로 배치된 공 간에서 정해진 동선 없이 유유자적하며 스스로가 편입가능한 공간이다.	중심성을 설정하지 않은 공간은 전체를 인지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가 생성된다.
로렉스 러닝 센터 Lausanne / 2005-2010		공원과 같은 건축	경사진 바닥으로 이루어 진 거대한 직사각형 평면 에 불규칙하게 소거된 비 정형 중정들	중정에 의해 길을 잃지는 않으면서 중심성과 방향 성이 없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	파편화되어있는 프로그램 들 사이를 유유자적할 수 있지만 매끄러운 슬라브는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열린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간의 다방향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히로시 센쥬 미술관 Karuzawa / 2010		자연지형의 일부와 같은 미술관	경사진 바닥으로 이루어 진 비정형 평면에 불규칙 하게 배열된 얇은 벽과 비정형 중정들	불규칙하게 배치된 벽이 전시영역이 되기도 하고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면 서 자유롭게 거닐 수 있 는 공간	이 미술관에서의 자유로 움은 관람객이 계속적으 로 움직일 때이며 머무름 에는 제약적이다.	모호한 경계에 의해 관람자 스스 로가 영역성과 방향성을 설정하 도록 한다.

관의 방대한 영역을 모두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이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일부분을 체험하더라도 건축의 전체 형상을 상상할 수 있다.³⁸⁾ 전체를 보여주는 방식은 진부하며 통상적인 닫힌 의미만을 전달하지만, 부분을 통한 의미작용은 즉각적이며 열린 상상을 가능하도록 한다.

(3) 모호함의 다중 기의

SANAA의 건축기표는 때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위계가 없고 탈중심적인 공간은 건축가의 의도를 불분명하게 전달한다.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며 미분화된 부분과 주변적인 건축은 사용자가 감각을 통해 전체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영역성을 모호하게 나타낸 벽체, 엇갈리게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사물들, 투명성 등이 다중적 기의를 생성해낸다. 이런 모호한 처리는 일방향적인 동선이 아닌 선택 가능한 잠재성을 열어 놓는다.

3.4. 소우 후지모토의 원초적 미래

일리야 프리고진(Ilya Prigogine)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Order Out of Chaos, 1979)’에 영향을 받은 소우 후지모토는 자연과도 같은 다양성의 건축, 원초적인 미래의 건축, 복잡함과 불확정성의 건축을 추구하였다. 특히 ‘건축가 없는 건축’을 지향하며 저자의 죽음을 스스로가 인정하였다.³⁹⁾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건축에서 텍

스트적인 특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다음 <표 11>와 같이 분석하였다.

(1) 기의가 아닌 기표 주변

소우 후지모토는 건축을 구성하는 고정된 외관 자체보다는 그 물리적 요소들 사이의 비물리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굴 혹은 거처와 같은 공간으로 묘사하였다.⁴⁰⁾ 즉, 개인에게 최적화된 보급자리를 만드는 것은 모든 의미를 산정해 놓은 저자의 작품과 같은 것이라면, 독자의 텍스트는 불완전한 동굴 속에서 거주하며 스스로가 영역을 구획하고 공간을 정의해 나갈 때 가능해진다.⁴¹⁾ 그러기 위해서 후지모토는 형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보다는 그 기표의 주변 혹은 그것들의 사이에 집중하였다. ‘시지마 산장’과 ‘정서장애 아동시설’에서는 평면적으로 흩어진 매스들이 느슨하게 모여 있으면서 사용자 스스로가 다양한 가능성을 찾도록 유도한다. 또한 ‘최종 목재 주택’에서는 입체적인 지형을 통해서, ‘치매 요양시설’과 ‘N 하우스’에서는 면에서 잘려진 부분들의 중첩과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상대적인 관계변화를 통해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후지모토의 기표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담지 않지만 그 주변과 그것들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낳는다.

39) Sou Fujimoto, op. cit., pp.10-14, p.219

40) Sou Fujimoto, op. cit., pp.85-87

41) Sou Fujimoto, op. cit., p.74

38) Nishizawa Ryue, op. cit., pp.29-30

(2) 감각으로 엮힌 장소

후지모토의 건축을 외연적인 1차 의미로만 봤을 때는 무작위의 배열로, 불규칙하며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2차 의미로 보게 되면 사용자의

<표 11> 소우 후지모토 텍스트 분석

작품 개요	참고 이미지	에크리튀르	건축공간에서의 신화		텍스트로서의 특성	
			1차 의미			
			기표	기의		
시지마산장 Nagano / 2002		거리감	가로세로 1820mm의 격자판 위에 바둑돌처럼 불규칙하게 놓은 사각과 삼각 코어, 반인공적인 11각형	코어 사이의 넓은 공간, 좁은 공간, 구석진 공간 등 다양한 인원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거리감의 중첩에 의해 감각으로 엮힌 공간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배열된 코어의 형상(Figure)이 아니라 그 주변의 틈이 만드는 장(Ground)에 있다. 기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주변에서부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최종 목재 주택 kumamoto / 2008		자연의 지형과도 같은 장소	350mm 크기의 삼나무 목재를 쌓아 올려 만든 입체적 공간	삼나무의 단차와 너비에 따라서 책상, 의자, 침대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신체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치수의 국소적인 관계가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가능성의 지형	다양성이 함축된 단일 치수의 나무소재는 어떠한 용도도 지지하지 않으며,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의미가 재해석된다.
노보리베쓰 치매 요양시설 Hokkaido / 2006		기척의 건축	-사선으로 잘린 벽 -대각선의 두 모서리가 열려 있는 공간	벽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공간	각각의 방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또한 열려 있어 서로 간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두 명 이상의 공간적인 관계를 주체 스스로가 설정하도록 돕는 건축적인 장치이다. 공간의 의미는 관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정서장애 아동 치료시설 Hokkaido / 2006		동굴과 같은 장소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방들 -방과 방 사이의 공간	전체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만의 공간 획득이 가능	스스로의 거처를 유연하게 선택하며 자유롭게 자기영역화 하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유대감은 유지되는 공간	자연 지형물인 동굴과 같은 건축은 어떠한 방향성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 각자의 성향에 맞도록 공간을 재편할 수 있다.
N 하우스 Oita / 2008		모호한 경계	-세 겹으로 포개어진 상자 -불규칙하게 뚫려있는 창문	상자들 사이의 내부이면서 외부인 공간, 외부이면서 내부와 같은 공간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도시 혹은 타자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정립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	객체와 객체는 그 사이의 중첩된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변모 할 수 있다. 도시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도 그 사이의 장치들에 의해 시시각각 의미가 재해석된다.

감각적인 측면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그는 스스로의 건축을 둘 이상의 관계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시각적으로는 분절되어 있지만 '기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축물 자체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다양한 관계성의 장소를 추구하였다.⁴²⁾ 즉, 건축의 형태가 사라지면 남게 되는 무형의 장(場)은 감각으로 엮히고 채워지게 되며 무한대의 'n차 의미'가 생성되어진다.

(3) 분화되지 않은 경계

외연적 기표는 사라지고 거리감만 남은 공간은 어떠한 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기능별로 날날이 나뉘진 것들이 재조합되는 기계적 건축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며 모든 공간이 기척, 거리감, 감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수직이동의 계단실과 머무는 장소인 층의 개념을 분리시킨 근대 건축의 도미노 시스템과는 비교되며, 수직적인 층층의



<그림 2> 원시적 미래의 건축

42) “두 사람이 있을 때 거리감이 생겨난다. 거리감이란 공간화 된 관계성이다.” “둘이라는 것,” Sou Fujimoto, op. cit., pp.81-83

구분이 미분화되고 모호해져서 머무는 공간만이 남은 상태를 일컫는다. 소우 후지모토는 이러한 새로운 건축형식을 ‘원시적 미래의 건축(Primitive Future House)’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그의 에크리튀르가 함축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원시적 건축어휘는 명시적 기능인 거대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일정 높이로 쌓는다는 국소적인 관계만으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한다.⁴³⁾

3.5. 소결

사례분석을 통해 Rem Koolhaas, SANAA, Sou Fujimoto는 현대건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주요하게 주목되었던 것은 건축적 표현에 의한 기표들이 특정의미로만 한정되어지지 않도록 기표들 간의 중첩, 연속, 혼재, 이접된 관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호텍스트적인 기법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사용자의 감각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때 그 생성적 의미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앞선 건축가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현대 건축이 텍스트로 작동하기 위한 특성과 체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며, 텍스트 건축에서의 건축가의 에크리튀르는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43)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배치하기 위한 상위개념으로서 거대한 질서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국소적인 부분끼리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다.” “부분의 건축,” Sou Fujimoto, op. cit., p.57

4. 텍스트로서 현대건축의 특성

4.1. 기의 없는 기표로서의 건축

(1) 상호텍스트적인 기의 없음

바르트의 '기의 없는 기표' 관점에 의하면, 죽은 건축이란 신화작용에 의해 점차 단일하고 안정적인 의미로 변형되었고 다양성 창출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상태이다. 이에 반하는 텍스트로서의 건축을 위해서는 궁극적 기의를 갖지 않으며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⁴⁴⁾ 텍스트로서의 건축은 기의 보다는 기표, 그리고 그 기표들 간의 상호 충돌에 의한 새로운 의미 생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램 콜하스 건축의 기표를 보면 여러 주제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의미가 함축적이며 불확정적인 상태이다. 예를 들어 쿤스트할을 보면 전체적인 공간구성에서부터 작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들을 패러디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산책 · 미스의 투명성 · 아돌프 로스의 라움 플랜 · 제임스 스텔링의 일상적이며 도시적인 건축 등의 주제가 응축되어 있어서 다의적이며 은유적인 성격을 갖는다.⁴⁵⁾ SANAA는 히로시 센쥬 미술관에서 물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였고, 여러 독립된 풍경들이 중첩되어 보이기도 하면서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성될 수 있는 잠재적 상태를 구현하였다.⁴⁶⁾

소우 후지모토의 최종 목재 주택은 쌓여진 목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지 않지만, 타자와 감각으로 연계됨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생성된다. 즉 사용자가 개입되기 이전의 목재는 어떠한 기의도 갖지 않지만, 특정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상대적인 공간관계가 형성된다.

이들 건축가에서는 부분들의 상호텍스트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콜하스와 같이 다양한 주제를 응축하여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 후지모토와 같이 의미 자체가 모호한 요소들이 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로 나뉘었다.

(2) 잠재적 사건의 장소로서 비권력적 텍스트

텍스트로서 건축의 목표는 어떠한 정해진 의미 없이 사용자 스스로의 가능성이 발현되는 무대이다. 이러한 비결정적 잠재성을 추구하는 텍스트는 건축가의 초기설정과 의도에 관여하는 에크리튀르에 지배받지 않으며 순수한 상태로 존재한다. 현대건축의 다양성 수용은 강요하지 않는 공간을 통해 가능하다. 권력적 에크리튀르에

의해 기능이 부여된 공간은 행동패턴을 강요하지만, 행동을 유발하고 허용하는 공간은 다양성을 창출한다.

이는 램 콜하스의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의 프로그램으로써의 기표들을 상호관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점기·중첩·이점·병렬·분산·포개기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나열된 상태를 응축해낸다. 그의 건축은 복합적인 상태의 연속성을 통해 계속적인 운동 상태를 유도해낸다. 이처럼 복잡함을 적극 수용하고 압축하여 동시다발적 충돌이 이뤄지게 하고, 잠재적인 사건의 평면을 가능하게 한다.

SANAA의 경우에는 일정한 틀 안에서 프로그램으로써의 기표들을 위계 없이 배열하거나 재설정하여, 주체 스스로가 자유롭게 순회하도록 한다. 그들의 건축에서 건축가가 설정해 놓은 위계질서는 무의미하며, 사용자 스스로에 의해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중요하다.

램 콜하스와 SANAA의 경우 프로그램으로써의 기표가 직접적인 사건의 장치였다면, 소우 후지모토의 경우에는 이를 역전시켰다. 기표 자체가 아닌, 반전된 영역인 그 주변이 중요해진다. 사용자는 기표들 간의 간격, 밀도, 느슨한 정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점유하게 되며, 기표는 이를 보조하는 주변적인 요소로써 작용하게 된다.

권력적 텍스트가 확고한 의미만을 전달하는 완결된 문장이라면, 비권력적 텍스트는 흩어진 단어들의 무한한 재조합이 가능한 상태이다. 건축에서의 비권력적 텍스트라는 것은 건축가의 의도를 뛰어 넘는 잠재적 사건이 발생할 여지를 두는 것이다.

(3) 부분들의 비의지적 접속에 의한 의미생성

겉모습의 화려함과 웅장함, 완전무결함만이 추구된 완전체로서의 건축은 사용자에게 의한 유연한 재해석과 접속하는 관계를 결여되게 한다. 즉, 건축가의 권위적인 의도로 완결된 전체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 불리하다. 반면 자유로운 접속 가능한 상태를 위해서는 통합되기 이전의 계열화된 상태, 즉 낱알이 세분화되어 비의지적인 순수한 상태로서의 부분일 때에 가능해진다.

램 콜하스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세분화하고 고정적인 프로그램들 사이에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교차되게 적층하여 통합되지 않은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SANAA의 건축에서는 기존의 관습적인 평면 위계를 탈피하고 공간, 프로그램, 가구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하나의 장(field)에 불규칙하게 배치하였다.⁴⁷⁾ 이를 통해 건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프로그램들이 재편집되고 무한한 의미가 생성 가능해진다. 한편, 소우 후지모토가 추구하는 원시적 미래의 주택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내포하지 않는다. 단지, 판이라는

44) Graham Allen, op. cit., pp.270-271

45)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2 은유와 생성, op. cit., pp.171-173

46) 전해주, 일본 현대건축의 생성적 공간구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23 n.4(통권 105호), 2014, p.80

47) 임기택, 후기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6, pp.156-158

세부요소의 국소적인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은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아닌 분자적 상태일 때, 잠재적 사건을 담을 수 있다.⁴⁸⁾

4.2. 감각으로 읽는 육체적 텍스트

비의지적 텍스트에 반하는 권력적 텍스트를 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르트의 육체적 텍스트이다. 언어에서 육체적 텍스트는 ‘육망, 충동, 육체적 리듬’의 장소이며, 일반화되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권위적 텍스트를 파열한다.⁴⁹⁾ 건축 또한 시각 중심적인 텍스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촉각적인 몸에 의한 육체적 텍스트로써 작동한다면 주체 스스로에 의한 장소가 가능해진다. 육체적 텍스트의 공간은 하나의 이상적이며 시각중심적인 파사드 혹은 장면이 아닌, 몸의 역동적인 공간 체험을 전제한다.⁵⁰⁾

램 콜하스의 건축에서는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놓여 있는 판을 접어서 한 번에 전체를 인지할 수 없고, 체험에 의해서 공간을 인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동선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 전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공간에 대한 계속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며, 공감각적인 감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SANAA의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원룸 공간을 경계 없이 유유자적하도록 하였다. 램 콜하스의 공간은 선적인 움직임이었다면, SANAA의 공간은 다방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는 다양한 사물들 혹은 공간들이 산재되어있어서 사용자는 스스로가 이들을 선택 취합할 수 있도록 한다.

램 콜하스와 SANAA가 유동적인 공간을 유도하였다면, 소우 후지모토의 건축은 정적인 상태에서 타자와 관계하는 감각을 열어두었다. 닫힌 듯 열려있는 공간은 타자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 간극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건축은 육체적인 텍스트, 즉 현상적인 관계를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4.3. 건축가 없는 건축

텍스트로서의 건축은 사용자에게 의한 재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불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건축가의

48) “기관 없는 신체는, 잠재적 차원에서 미분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신체이다.”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형4 생기론, 미메시스, 2013, p.76

49) “언어에 대한 육체적 관계는 주체가 어린아이가 사회의 공식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비롯된다. 상징적 질서로 들어가기 이전의 어린이-주체는 육망과 충동, 육체적 리듬의 장소이다. 이것은 기호적인 것(le sémiotique)이며,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시적(poetic)인 것의 위대한 원천이다. 급진적 언어와 예술은 기호적인 것을 개척하고자 하며, 상징적인 것의 투명하고 자연화 된 억압적 언어에 파열을 내고자 한다.” Graham Allen, op. cit., pp.220-221

50) 박영옥,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91

독단적 건축은 잘 짜인 각본과 그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면, 텍스트 건축은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 각자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가는 뒤로 물러서고 사용자 혹은 독자에 의한 건축을 기대할 수 있다.

램 콜하스는 자신의 건축에 더 많은 기능과 사건들 혹은 다른 건축가들의 개념까지도 중첩하여서 응축해냈다. 특히 요코하마 계획안에서는 하나의 장소에 시간대 별로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제안하였다. 이런 관점은 형태가 아닌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의해 완성해나가는 여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⁵¹⁾ SANAA의 건축은 느슨하게 연결된 기표들을 사용자 스스로의 동선에 따라서 조합하며 완성해나가는 건축, 독자의 상상력이 확장되는 열린 건축을 추구하였다.⁵²⁾ 소우 후지모토의 건축에서는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을 재구축하는 것, 원초적인 동굴과 같은 지형을 독자 스스로가 찾아나갈 기회가 주어진 ‘거처’와 같은 장소를 제안하였다.⁵³⁾

4.4. 소결

현대건축가들은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건축의 에크리튀르는 ‘건축가 없는 건축’으로 설명 되어 질 수 있다. 건축가의 주장이 한발 뒤로 물러서고, 사용자에게 의한 건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미완의 기표들을 사용자 스스로가 결정지어 나가도록 하는 ‘기의 없는 기표’와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 ‘육체적 텍스트’의 상태가 동반되어야 한다.

5. 결론

롤랑 바르트의 신화적 분석을 통해 건축이 텍스트로서 작동하는지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건축이 어떻게 해야 건축가의 의지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자가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건축가는 때때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개념을 강하게 표명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건축가의 독단은 때때로 동일성을 지향하며 자기과시, 자기중심적이며 결국에는 감흥 없는 상태에 이르기에도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흐름은 거주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원한다.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건축가와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기도 하고, 자신

51)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형2 은유와 생성, op. cit., p.257

52) Nishizawa Ryue, op. cit., pp.239-241

53) Sou Fujimoto, op. cit., pp.85-87

의 취향에 맞는 셀프인테리어가 유행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텍스트로서의 건축을 위한 건축가의 태도는 어떠해야하는가? 이는 마치 에로틱한 연극을 연출하는 것과 같다. 에로틱은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으며 ‘암시적’이기 때문에 관객의 깊은 사색과 참여하는 시선을 요구한다. 또한 연극적인 텍스트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독백이 아닌, 타자지향적인 서로간의 대화이다.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으며 변증법적인 아이러니와 역설이 오가는 대화는 계속적인 의미를 생성해낸다. 이러한 대화와 사색의 유희,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텍스트 건축의 잠재성이다. 즉, 기표가 최종적 기의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며 독자에게 해독하는 즐거움을 허용하는 것이 텍스트적인 건축이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건축, 중립적인 건축, 건축가 없는 건축은 사실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축에서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롤랑바르트의 신화적 건축 분석은 현대건축을 텍스트로 보는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의 텍스트적 접근은 건축가의 계획과 사용자의 현상적 해석 사이에서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한다. 이처럼 건축 분석과 디자인적 접근 모두에서 이 논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대건축의 보다 폭 넓은 사례를 통해 텍스트적인 건축 디자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Graham Allen, 송은영 역,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앨피, 2006
2. Herman Hertzberger,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 수업, 효형출판, 2009
3. Kazuyo Sejima+Ryue Nishizawa, El croquis 121+122, 2004
4. Nishizawa Ryue, 강연진 역, 니시자와 류에가 말하는 열린 건축, 한울, 2016
5. Rem koolhaas, El croquis 53+79, 1998
6. Robert Venturi, 임창복 역,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동녘, 2004
7. Roland Barth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8. Sou Fujimoto, 정영희 역,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디자인하우스, 2012
9. Stjepan G. Mestrovic, 박형신 역,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10. Uchida Tatsuru,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11.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12.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3. 임기택, 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14. 임기택,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15. 임기택,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4
16. 임기택, 후기구조주의와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2016
17.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2 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0
18.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4 생기론, 미메시스, 2013
19.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20. 박유미, 소쉬르의 CLG(일반언어학 강의)에 나타난 이원성 원리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4
21. 김창현·김경화·안상원·이노미·정혜선, ‘샘물 세모금’에 나타난 알레고리와 한국 아동문학가의 에크리튀르, 인문논총 v.72 n.1, 2015
22. 이강훈, 대화주의와 아이러니, 영미연구 제33집, 2015
23. 전해주, 일본 현대건축의 생성적 공간구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3 n.4(통권 105호), 2014
24. 정성욱, 연결망 분석도구를 이용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패턴 언어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25 n.3(통권 116호), 2016
25. EBS 다큐프라임, 감각의 제국 1부(살아 있는 모든 것은 감각한다), 2015
26.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논문접수 : 2016. 11. 18]

[1차 심사 : 2016. 12. 16]

[게재확정 : 2017. 01. 07]